

미리보는 2012 광주비엔날레



비엔날레 기간 문경원·전준호씨가 선보일 영상 작품 '세상의 저편'. 이 작품은 작가들이 독일 카셀 도큐멘타에서 선보인 '뉴스 프롬 노웨어'의 하나다.

찰흙통닭을 치킨으로 바꿔 먹고 등근 테이블서 탁구도 치고 흠어진 파편 모아 원래 작품으로

광주비엔날레는 행사 때마다 수십 만명의 관람객을 불러들이며 국내 및 아시아 미술계의 간판으로 위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킬러콘텐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해하다, 현대미술은 모호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대중의 심리적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회화가 익숙한 관람객들에겐 사진이나 영상·설치 작품은 "어렵다"는 편견도 강하다.

올해도 40개국 92명(팀)의 작가가 내놓는 작품 50% 이상이 영상·설치 작품으로 채워져 있고 대부분 새롭게 발표되는 작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정(47) 광주비엔날레 책임공동예술감독은 "관람객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 많다"고 강조한다. 작가의 의도나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꿰뚫어 아만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만큼 이색 작품들이 적지 않다.

◇통닭 조각에 '치킨 교환권' = 설치미술가 김범(49)씨는 '조각적 조립법'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작가로서 이럴 때 좋은 일 좀 해보고 싶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으로, 종이찰흙으로 빚은 통닭 모양 작품 12개를 만들어 판매한 뒤 판매액 전액을 통닭 쿠폰으로 바꿔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실패 크지 않

작품 50%가 영상·설치작품 "새롭지만 어렵지 않아요"

품의 판매가는 갤러리에서 판매되는 가격(작품당 1000만원 이상)의 절반 가량으로 검토중이다. 김 작가는 이미 발품을 팔며 쿠폰으로 바꿔주는 데 인쇄하지 않은 치킨집까지 물색해왔다.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어요"라고 할 때 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치킨 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도 정해냈다.

문 없던 뚝은 시절, '작품과 치킨을 바꿔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착안했다는 후문이다.

김씨는 조각가 고 김세중(1928~1986)과 시인 김남조씨의 아들로, 회화,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면서 석남미술상(1995),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1), 선미술상(2007) 등을 수상한 실력있는 작가다.

◇남북 분단·화해의 상징, '핑퐁' = 태극 작가 리크리트 티라바니자는 탁구대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주제에 맞춰 사각형이 아닌, 둥근 테이블을 만들고 두 개의 네트를 설치한다. 두 개의 네트는 분단의 상징이면서 DMZ를 의미하기도 한다. 탁구는 남북 화해 모드의 상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작품은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 아이웨이웨이의 '시인 공간' 작품과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보물 찾기(?)' 프로젝트 =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사라지거나 돌아오거나 그 사이 어딘가에 있거나'라는 작품은 광주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보물찾기'를 연상케 한다. 5·18 광주항쟁과 당시 '실종자'들에 대한 기억도 연못 떠올리게 한다.

안 교수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조각상(동물·불상·소녀상·손 모양이나 자유 여신상의 불꽃상)을 깨트려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되돌아오는 파편을 붙여 원래 모양을 만드는 작업 ▲그림이 그려진 소형 캔버스 200개를 시내 곳곳에 버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신문에 분실 공고를 내고 회수한다. 회수된 것은 전시관에, 회수되지 않은 자리는 비워둔다. 전시 기간 회수되는 작품을 붙여 나간다 ▲책, 시, 연애편지, 사진첩, 악기, 권총 등을 해체해 시내 곳곳에 숨겨 남겨놓는다.

안 교수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광주라는 도시 전체가 작업 무대이자 과정으로 편입되는, 도시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라고 했다.

◇시내 전광판에 '작품' = 1990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미국 출신 개념미술가 제니 홀저의 작품도 관심을 끈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베를린 국회의사당 등 건물 벽면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건물 전면에 영어 문장을 투사하는 등 빛의 퍼 작품은 유명하다.

작가는 광주비엔날레 기간 서구문화센터 전광판을 활용해 영어·한국어로 된 작품을 올려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어로 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국어를 찾기 위해 인문학을 아우르는 통역원도 급히 물색하고 나섰다.

◇이정재·임수정은 작품에 '등장' = 제 13회 카셀 도큐멘타에서 한국인으로서는 20년 만에 초청받은 문경원·전준호씨는 도큐멘타 기간에 선보인 작품 '뉴스 프롬 노웨어'(News from nowhere) 중 영상 작품 '세상의 저편'을 그대로 선보인다.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된 영상은 지구 환경 변화로 인류 생존이 위협받는 미래를 배경으로 했고 이정재·임수정은 15분짜리 영화에 노 개런티로 출연했다.

이의 뉴질랜드 작가 스콧 이디의 '100대의 자전거 프로젝트'등도 관심을 모으는 설치작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암전통문화대상 한국화가 박종석씨

“내 꿈은 호남 회화 500년 집대성하는 것”

한국화가 석주 박종석(54)씨는 그림 작업과 함께 20여년 동안 호남 남화의 뿌리와 정신을 탐구하는 집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자료를 챙기고, 글을 쓰고, 책으로 펴내고, 모두 오롯이 혼자해오고 있는 작업들이다. 결과물을 손에 쥔 때면 고생했던 기억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지만, 그 과정들은 힘들고 지난했다.

9일 화천기공 회의실에서 열린 제 2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박씨는 “정말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 기쁘다”고 말했다.

“제 꿈이 호남 회화 500년을 집대성하는 것입니다. 한 인물을 보통 8~10년씩 연구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참 어려운 작업이죠. 우리 지역의 전통회화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남화의 뿌리와 정신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책임감도 느낍니다.”

서암전통문화대상(상금 3000만원)은 화천그룹이 설립자 고(故)서암 권승관 명예회장(2004년 작고)의 유지를 받들어 창립한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이 제정한 상으로

지난해에는 국악기 장인 이춘봉씨가 수상했었다.

“예술작품은 역사 의식, 시대 의식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전통이나 역사라고 하는 게 버려야 할 것,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담겨 있고 우리 삶과 사상의 뿌리이자 근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학포 양광손의 삶과 예술을 담은 '부러진 대나무', 열재 송태회를 담당한 '세한을 기약하고'를 펴낸 박씨는 올해부터는 사후 송수년에 대한 자료 준비에 들어가 내년 후반께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박씨는 21년 동안 오지여행을 하며 작품을 발표해 왔다. 지금까지 가장 큰 영감을 줬던 곳은 7000km를 탐험했던 티베트 창탕 고원.

“초창기에는 하루에 1000원~2000원 쓰면서 여행을 다녔곤 했죠. 한번 여행을 가면 200~300점을 스케치해 오는데 현장에서 내눈으로 본 장엄한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면서 느끼는 감성들이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박씨는 오는 17일 40일 일정으로



안나푸르나와 네팔 칸텐중가로 떠나며 10월에는 광주와 순천·부산에서 '영혼의 히말라야전'이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갖는다.

20여년간 주로 수묵작업을 진행해온 그는 최근에 채색작업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오지 탐험을 하면서 만난 별빛이나 오지 사람들의 맑고 티없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먹을 기초로 한 채색 작업들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광주 출신으로 호남대 미술학과, 조선대 석사과정을 마친 박씨는 광주미술대전 대상, 광주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오늘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 정기연주회

‘새로운 아리랑을 들려준다.’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가 세 번째 정기연주회 'Neo Arirang, 세계를 노래하다'를 무대에 올린다.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광주문화회관이 기획한 남도소리 상설무대에 오르는 루트머지는 이번 공연에서 '아리랑'을 소재로 그룹 멤버 박수지씨가 새롭게 작곡하고 편곡한 '미랑', '긴 아리랑', '아리랑 시나위' 등을 들려준다.

지난 2008년 활동을 시작한 '루트머지(RootMerge)'는 한국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음악적 요소의 충돌과 소용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룹.

악기 구성은 가야금(홍윤진),



홍윤진



박수지

건반·작곡(박수지), 드럼(황성훈), 베이스(차유창), 보컬(박혜진), 국악타악(김종일)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넘버원 코리아와 합작 가수 안태훈 등이 찬조출연, 루트머지와 함께 '진도 아리랑', '연변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등을 새로운 버전으로 들려준다. 티켓 가격 전석 만원. 문의 010-3610-0767.

/김미은기자 mekim@

공옥진 여사 별세로

1인 창무극 꿇길 위기

공옥진 여사의 별세로 '1인 창무극'의 전통이 꿇길 위기에 처했다.

무형문화재 지정이 늦어지면서 전수자를 육성할 수 없었고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념관조차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공 여사가 별세하면서 현재 '1인 창무극'을 계승할 공식적인 전수자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무형문화재로 등록되면 조고, 전수장 학생을 둘 수 있다. 아들에게도 20만~7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준다.

30여년간 공 여사 문화에서 '1인 창무극'을 배워 유일한 전수자로 알려진 영광문화원 사무국장 한현선(48·여)씨도 여전히 전수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이 늦어지면서 기념관 건립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공 여사가 수십년동안 활동하며 쌓아온 창무극 관련 자료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일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변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해이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회**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외벽, 지하실,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외벽 시공사진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 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